

푸들견에서의 두개강외 수막종 증례

지현철, 이재연, 정기현, 김명철, 조성환, 이영원, 최호정, 박성준, 정성목*

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

서 론: 수막종은 개에서 두개강에 발생하는 종양 중 가장 흔한 종양으로 주로 양성이며 단발적으로 발생한다. 그러나 극히 드물게 두개강 외부에서도 발생하며 그 부위는 부비강, 안와, 및 척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

재료 및 방법: 6년령의 암컷 푸들(6.3kg)이 전두골 전반에 걸친 큰 두부 종괴를 주증으로 내원하였다. 병력청취를 통해 3개월 전부터 종괴의 축진이 가능하였으며 1개월 전부터 종괴가 급속히 성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. 신체검사상에서 종괴는 6.0×3.5×3 cm의 크기로 연질성, 부동성이었다. 신경계검사에서는 이상소견을 확인할 수 없었다. 혈액검사 및 혈청화학 검사에서는 특이소견을 발견할 수 없었다. 이에 종괴의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방사선검사, 초음파검사, 흡인생검 세포검사, 컴퓨터단층촬영검사(computed tomography, CT) 및 자기공명 영상검사(magnetic resonance imaging, MRI)를 실시하였다.

결 과: 두개관 일반 방사선 외측상에서 두정부에 직경 6cm 크기의 연부 조직밀도의 종괴를 관찰하였으며 흉부 일반 방사선 사진에서 왼쪽 폐엽에서 5번째 늑골에 인접하여 1×0.5 cm 크기로 연부조직밀도의 결절을 확인할 수 있었다. 초음파 검사에서 종괴는 혼합된 에코를 보였다. 초음파 유도하여 실시한 흡인생검 세포검사서 파골세포와 방추세포 등을 확인하였다. 두개관 CT의 횡단면 상에서 비균질성의 종괴를 확인하였고 조영실시 후 조영증강이 관찰되었으며 좌측 두정골이 소실되었음을 확인하였다. 흉부 CT의 횡단면 상에서 흉벽 에 인접해서 고밀도로 나타나는 직경 1 cm 크기의 종괴 1개를 확인하였다. MRI에서 종괴는 T1 강조영상에서 등-저신호로, T2 강조영상에서 고신호로 관찰되었으며 dural tail sign을 통해 뇌수막부위까지 병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.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수막종으로 잠정진단하였으며 흉부로의 전이를 의심할 수 있었으나 환축의 안락한 생활을 위하여 전두골 전반에 걸친 종괴의 수술적 절제를 실시하였다. 술 후 환축의 상태는 양호하였다. 절제한 종괴의 조직병리학적검사를 통해 수막종으로 확진하였다. 수술 1개월 후에, 종양의 재발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흉부 일반 방사선에서 왼쪽 폐엽의 결절이 커지고 왼쪽 폐엽 등쪽 후방에서 3cm 정도의 연부 조직 밀도를 나타내는 결절을 확인하였다. 또한 흉부 CT검사에서도 고밀도의 종괴가 2개 확인되었다. 두개관 CT 및 MRI에서 안구후방까지 종양이 침습하였음을 확인하였다. 항암요법나, 방사선 치료 등과 같은 추가적인 치료는 실시하지 않았다.

임상적 의의: 수막종은 개에서 두개강내 발생하는 종양 중 가장 흔한 종양이지만, 두개강 외부에 발생한 수막종은 보고된 바가 드문 증례로써 이에 보고하고자 한다.

*Corresponding author: jsmok@cnu.ac.kr